

김준오 시론의 페르소나(persona) 문제 연구

— 『詩論』을 중심으로

이 석*

1. 서론
2. 본론
 - 2.1. ‘동일성’의 아포리아
 - 2.2. ‘시안’이라는 존재와 ‘목소리’의 근원성
 - 2.3. ‘탈’(persona)의 이율배반
3. 결론

〈국문초록〉

김준오는 자신의 시론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일성’이라는 이념적 가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유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동일성’이 갖는 의미의 핵심 그 자체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문제는 “그의 ‘동일성의 시론’이 갖는 이 변화와 일관되게 유지된 관점(동일성)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점에 있다. 이 문제에 적절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론의 중심에 있는 ‘동일성’ 개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김준오 시론의 핵심을 이루는 저작인 『시론』에 관한 읽기를 통해서 실제로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그의 이론적 체계 전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김준오가 『시론』 속에서 ‘동일성’이 하나의 ‘가치개

* 경희대학교

념'으로 정의 내릴 때, 그의 의도는 '동일성'이 『시론』의 체계 속에서 일관된 이념적 성격으로 작동하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론』속에서 '동일성'의 작동 방식은 그 개념의 토대가 부재한 채 작동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드러낸다. 시론의 체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의미하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은 동일성의 시론을 비논리적 체계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의 시론을 추동시키면서 그 중핵에서 구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동일성'의 측면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비동일성이 지닌 적극적인 의미를 동시에 해명하는 것이다.

김준오의 '동일성' 시론이 지니는 핵심에 놓이는 하이데거적 의미의 존재론적 관점은 시에 관한 인식의 핵심에 그가 어떻게 시인이라는 '존재'를 위치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시론』 제1장 2절) 시인이라는 존재의 근원에서 그가 발견하는 의미의 중핵은 '목소리'가 지니는 근원성에 있다.(『시론』 제3장) 시를 담화의 한 양식으로 보는 저자의 입장은 '어조'를 화자의 목소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때의 '목소리'는 탈(persona)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화자와 화자의 목소리, 그리고 탈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가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시론, 즉 '시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답을 이루는 것이다. 각각의 개념들이 서로 얽혀있는 가운데, 김준오의 시론이 구축하고자 했던 체계는 '동일성'의 일관성을 따르는, '차이'를 지양하는 운동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존재론적 물음에서 시작된 그의 시론의 근원적 토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탈'이 지니는 근본적인 이율배반적 성격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김준오의 『시론』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정확히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아포리아로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해서, 탈의 개념을 해명하는 김준오의 비동일적 관점은 실패한 동일화의 흔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론의 체계를 구획하고자 했던 김준오의 관점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 엄밀히 말해서 김준오의 시론이 **내포하는(필자 강조)**1)**근본적인 '비

‘동일성’의 차원이 놓이는 자리도 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김준오의 시론은 사유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의 한 지점을 나타낸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의미의 과잉’을 드러내며, 그의 시론이 지닌 현재적 가치는 거기에 있다. ‘동일성의 시론’이 갖는 실제적 의미는 ‘동일화의 시론’이며, 그것은 실패한 ‘동일화’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시론』의 내부에서 ‘페르소나’의 장(章)이 차지하는 의의는 오직 그 텍스트의 내적 의미 맥락에 대한 논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김준오의 ‘동일성에 대한 열망’이 지니는 현재적 가치는 ‘주체의 죽음’이나 ‘저자의 죽음’이 운위되는 담론 구조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유지시킨 대응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론』과는 별개로 현재적 맥락에서 쓰인 「轉移의 시론」이 도달한 지점이 갖는 의미는 (‘동일성’의 또 다른 층위로서) ‘전이’라는 개념의 발견에 있다. 이 개념은 ‘은유적 차원’과 ‘환유적 차원’을 아우르며 현대시의 지배적 기법에 대한 설명 기제로서 등장한다. 요컨대 김준오의 자신의 인식적 변화와 함께 현대시의 개념적 변화로서, 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의 변이를 ‘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의 시론 전개가 갖는 전체적 의미가 ‘동일성 자체의 동일화 과정’이 아닌, ‘동일성의 무한한 차이화’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김준오, 동일성, 비동일성, 탈(persona), 시인, 화자, 전이(轉移)

1. 서론

김준오 시론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 개념은 ‘동일성’이다. 그의 저서 『詩論』의 제1판(1982)은 ‘동일성의 시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이후에

** 이하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새로운 판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과 결부된 항목들의 체계가 하나의 보론(補論)으로 이동한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단순한 배치의 변화라기보다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저자(김준오) 자신의 관점의 이동이라는 측면에 있다. 김준오의 시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일성’이라는 개념의 의미에 대한 해명 즉, ‘동일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김준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 ‘동일성’과 관련된 저자 자신의 관점의 이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파악 가능한 문제들이다. 하나의 고정된 개념 속에서 사유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둘러싼) 현재 시점의 작품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개념이 지닌 본래 위치를 변모시켜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의 모순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同一性(identity)이란 용어는 결코 군더더기 말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처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듯이 모호성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두 가지 文脈에서 발생한다. 通時的인 면에서 ‘變化’를 통하여, 共時的인 면에서 ‘葛藤’을 통하여, 同一性은 가치개념으로 충격된다.

이 변화와 갈등은 현대인의 보편적인 體驗樣相이다. 현대인은 나와 세계의 격심한 변화를 체험하고 동시에 나와 세계와의 관계, 심지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疎外와 갈등을 체험한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변하지 않는 것과 一體感은 실제의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理念처럼 커다란 의의를 지니게 마련이다.¹⁾

1)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2011, 6쪽. 이하 이 책의 인용은 인용문 속에서 페이지 수만 밝히기로 한다.

잠정적으로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김준오가 겨냥한 것은 먼저 그것이 하나의 ‘이념적 성격’을 띠는 개념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두 측면을 통해서 ‘변화’와 ‘갈등’의 이중 구조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다. ‘동일성’이 하나의 ‘가치’로서 현실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이념’적 성격을 띠는 것은 그것이 현실 영역의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현실의 현상들(‘체험양상’)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준거틀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의 개념이 지닌 층위는 우리가 그 말의 사전적 의미로 미루어 짐작하듯이 확고부동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일성’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과 별개로 그 문자가 놓여 있는 장소는 ‘변화’와 ‘갈등’의 시공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김준오가 ‘동일성’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변화’의 측면을 이야기 하고자 한 것인지, 혹은 엄밀한 토대를 구축하려 했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지 못하다. 단지 여기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 사이에 일말의 모순이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느 한쪽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동일성’이라는 단어가 지닌 정의(定義)가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김준오의 사유가 어떻게 변모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지칭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김준오라는 저자가 『시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시론』은 시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의 역사적 관점에 관한 문제와 시의 존재론적 문제에 관한 의미 탐색의 결과물이라는 데 그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변화와 갈등’이라는 위태로운 지반 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채 주어져 있다. 이것이 김준오라는 이론가가 지닌 독특한 관점의 하나이다.

김준오가 “詩는 同一性이다”(6)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의 정의로서 부

죽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동어반복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시’를 서술하는 ‘동일성’이라는 술어는 ‘시’의 개념에 아무런 내용도 덧붙이지 않는다. ‘시는 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시는 동일성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준오가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시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일관된 태도는 —그것의 개념적 일관성을 훼손시킬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응전의 방식을 통해, ‘시’에 대한 정의를 지속적인 변화의 양상 위에 놓아야만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탐구와 주장은 그 자체로 ‘동일성의 혼란’이라는 위기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393) 또한 김준오에게 어떤 것의 ‘위기’란 대상의 소멸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²⁾ 다시 말해서, ‘동일성’이라는 표현 뒤에는 항상 이미 하나의 ‘혼돈’(존재방식의 변화)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트랜스크리티컬한 인식’³⁾, 그것은 현실과 이론(생각) 사이의 상위의식에 기반 한다. 고진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인식적 태도는 ‘차이’와 ‘횡단적’ 이동의 체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이념’(동일성)을 말하고 있으되, 그것이 독단적이거나 이상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김준오가 지닌 일종의 ‘트랜스크리티컬한 인식’의 태도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거나, 실천 가능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이론의 지평 위에서 ‘실천’의 문제가 어떤 가능성을 띠고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시는 동일성이다’라는 문장은 아직은 동어반복에 머물고 있지만, 그 언표행위 주체의 차원은 여전히 실천적인 의미를 작동시킨다. 본고의 최종적 시안은 ‘동일성’에 대한

2) “중요한 것은 시의 위기관 시의 소멸이 아니라 시의 존재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김준오, 「새로운 시의 지평을 열기위한 논쟁」, 『현대시의 방법론과 모더니티』, 새미, 2009, 332쪽.

3)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컬』, 송태욱 역, 한길사, 2005, 23쪽.

김준오의 태도가 갖는 의의가 ‘동일성’의 혼란, 혹은 ‘동일성’이라는 말이 이미 죽은 언어 취급을 받는 근본적 위기의 순간인 현재적 관점 속에서, 비로소 그것이 ‘충격하는 가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데 있다. 그와 같은 결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성’ 그 자체에 대한 물음에서 논의를 시작 할 것이다. 시와 결부된 의미와는 별개로 ‘정체성, 개성, 일체감’(393 각주1) 등으로 정의한 ‘동일성’ 그 자체가 지닌 의미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동일성’의 개념이 지닌 모호함의 궁극적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 이어서 ‘동일성’의 존재 기반이 김준오가 제시한 ‘탈(persona)’의 개념과 어떤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 혹은 페르소나의 개념은 그의 시론의 중추를 형성하는 ‘주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론』은 물론 구분하고, 분류하고 정의내리는 책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명확한 이론적 체계를 구획하기 위해 구상되었고 또 그렇게 쓰였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현대시의 의미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체계는 변동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완결되고 있다. 오규원의 『현대시작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는 ‘체계화는 저서의 생명’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한다.⁴⁾ 그러나 그러한 체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론』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장애를 형성하는 것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불가공약적인 개념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⁵⁾ 김준오 자신이 줄곧 ‘시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문제에 결부된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거점으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의 ‘동일성의 시론’이 안고 있는 ‘비동일성’의 측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그가 그려놓은 체계의 적실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중심 지대일 것이기 때문이다.

4) 김준오, 「대상 인식과 시쓰기의 바로잡기」, 『현대시의 해부』, 새미, 2009, 190쪽.

5) 이도연, 「김준오 시론 연구」, 『국어국문학』 제145호, 국어국문학회, 2007, 367~368쪽.

2. 본론

2.1. '동일성'의 아포리아

‘시는 동일성이다’라는 명제가 하나의 동어반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에 대한 정의로서 그것은 부적합하다. 동일성 자체가 하나의 ‘가치 개념’으로서 가능한 자아의 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원리라면, 시라는 대상을 정의내리는 술어로서 ‘동일성’은 무근거 위에 놓이는 셈이다. 시에 있어서 ‘동일성’의 측면은 그것의 속성이기보다는 요청된 어떤 것이다. ‘시는 동일성이다’라는 문장을 동일성이 지니는 이념적 측면에 걸맞게 재정위하면 이렇게 된다. ‘시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은 ‘동일성’을 지향해야만 한다. 이 명제에 내재하는 물음의 층위는 단지 ‘동일성’이라는 이념에 대한 지향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는다. 김준오의 체계에 입각해 본다면, ‘시는 동일성이다’라는 문장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와 ‘동일성’을 동일함 속에서 논하고 있는 ‘언표행위 주체’의 차원이다.

따라서 A는 A이다, 라는 동일률에 대한 적합한 형식은 각각의 A는 각자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A 자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동일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동일함 속에는 <함께>의 관계, 따라서 하나의 매개, 연합, 중합, 즉 통일성을 지향하는 하나됨이 놓여 있다.**⁶⁾

동일률에 대해 주목하면서 하이데거는 $\langle A=A \rangle$ 의 형식을 $\langle A\text{는 } A\text{이다} \rangle$ 라는 문장으로 옮기고, A라는 주체(주어)의 차원에서 $\langle \dots\text{이다} \rangle$ 라는 ‘있음’의 차원을 강조한다. 즉 동일률이라는 논리 구조에 감추어져 있던 ‘존재’의 측면, 즉 각각의 존재자가 어떻게-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따라서 ‘동일률’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6) 마르틴 하이데거, 『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역, 민음사, 2009, 13쪽.

것이다. 나아가 하이데거의 논법이 강조하는 바는 ‘자기 자신과의 통일성’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존재의 법칙만이 ‘사유의 법칙’으로서 통용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하이데거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지점은 그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의미 맥락과의 접속을 이루는, 일반화의 법칙을 향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오히려 하이데거의 ‘사유’가 드러내는 적실성은 그것을 개념으로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된 어떤 것으로부터 아직 ‘사유되지 않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전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수용의 문제에 내기 걸려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유자에게 귀를 기울여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만 했는가’)를 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물론 해석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에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유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러한 위험성과 불안, 시작의 공포에 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피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주대해야 하는 ‘사유의 조건’이다.

하이데거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와 더불어 우리는 김준오가 견지한 ‘사유’의 본질에 더 근접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동일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만 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석적 차원으로부터 해석적 차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시는 동일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념적 대상으로서의 ‘동일성’과 결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다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는 동일성이다’라는 동일성을 떠받치고 있는 ‘동일함’ 속에는 ‘하나의 매개, 연합, 종합, 즉 통일성을 지향하는 하나됨’이 은폐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일성의 시론’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동일성’에 입각한, ‘동일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모색했던 김준오가 ‘시’와 ‘동일성’ 자체를 동일시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즉 하나의 동어반복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켜야 했던, ‘동일성 속에 편재하는 매개’ 즉, ‘차이’에 대해

7) 마르틴 하이데거, 『이정표 2』, 이선일 역, 한길사, 2005, 212쪽.

말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김준오에게 있어서 ‘동일성’의 문제가 ‘비동일성’의 차원과 단순히 대립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 인식의 근원에서 작동하고 있던 근본 원리에 가까웠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시론을 정립하려는 그의 시도가 미완으로 끝을 맺고 있다⁸⁾는 사실이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 미완의 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시론』 속에서 하이데거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그의 시론의 체계에서 결정적 지점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것은 시의 언어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의 ‘물개성론적 관점’에 대한 사례적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하이데거를 취급하는 방식이다. 제1장의 2절에 해당하는 「언어」(II. 존재와 언어: 존재론적 현상학)에서 김준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입각한 ‘언어’의 의미로부터 ‘자기부정’과 ‘자기 초월’의 의미를 추출한다. 그는 하이데거의 ‘존재’를 일종의 초월적 기의로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하이데거를 ‘접신론자이며 극단적 물개성론자’(70)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만해의 시를 인용하면서 시를 하나의 ‘대화(답화)’의 차원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관을 언급하는 구절에서 김준오는 자신의 시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모두 존재를 말해야 하며, 존재를 말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오직 본질적 존재가 되며 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일한 대화가 있어야 하는 곳에 본질적 언어는 하나의 동일한 것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언어는 **하나의 동일한 것**,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 곧 존재를 보일 때만 유일한 대화이다.……(중략)……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사물들의 보이지 않는 근거이므로 구체적 사물을 통할 때만

8) 이도연, 앞의 글, 375쪽.

게시된다. 그리하여 존재는 ‘숨겨져’ 있는 은폐성과 동시에 ‘변장’을 해서만 자신을 나타내는 게시성을 갖는다. 즉, 존재의 나타남은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것, 곧 존재자를 통해 자기를 ‘알리는’ 일이다.(73)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해석하고 있는 구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시인과 페르소나의 관계에 대한 김준오 자신의 관점이다. 이 존재의 현시, 존재와 존재자와의 관계(‘존재론적 차이’) 등은 김준오에게 있어서 시인과 화자(페르소나)가 의미하는 관계와 동일하다. ‘시인이 존재자를 명명함으로써 그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시인 앞에 존립하게 된다.’(74) 이 지점에서 김준오에게 있어서의 ‘시인’은 하이데거에게서 존재가 그렇듯이 초월적이거나,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하나의 ‘심연’(abgrund)을 가리킨다. 하이데거와 김준오의 ‘대화’이기도 한 『시론』의 제1장,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것’을 보일 때만 유일한 대화라는 것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모순’(77)에서 시어의 특징을 들고 있는 김준오의 관점은 ‘말해지지 않은 것’을 통해 존재와 사유의 지점을 향해가는 모험에 있는 하이데거의 입장과 겹쳐진다.

<동일성에 대해 진술하는 그런 진술로서의 명제>로부터 <동일성의 본질 유래 속으로 도약해 들어가는 그런 도약으로서의 명제 [뵐]>로 나아가는 도상에서 사유는 변화한다sich-wandeln. 이런 까닭에 사유는 현재를 맞이하여-주시하는entgegenblickend 가운데 인간의 상황을 넘어서서 존재와 인간을 서로에게 고유하게 하는 것 으로부터—즉 생-기로부터—이 둘의 형세를 통찰한다.9)

9)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30쪽.

김준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에 대해 진술하는 진술로서의 명제’가 아니라, ‘동일성의 본질로 도약하는’, 하나의 도약으로서의 명제이다. 그가 단순히 ‘동일성’에 입각한 사유의 전개를 모색한 것이 아니라, ‘동일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념적 차원으로 옮겨 놓은 채, 그것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전개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가 지닌 인식의 독특한 차원을 설명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그의 『시론』은 닫힌 체계가 아닌, 열린 체계를 이루며 지속적인 변화의 지점을 내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와 같은 존재론적 현실 인식은 시대의 상황에 대한 언급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물개성론적 관점은 60년대 김춘수의 무의미시나 이승훈의 비대상시와 연계되어 설명된다. 김준오의 ‘동일성의 시론’이 지닌 위험은 그것이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거나, ‘동일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시종일관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동일성’이라는 개념 이전에 이미 그가 어떻게 ‘차이’와 균열을 체계의 근원적 지점에 가져다 놓고 있는가라는 인식적 차원과 관련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그의 (시에 대한) 인식의 층위가 균열을 전제 했을 때 비로소 동일성의 필연성이 재현 가능한 지점으로 현시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존재의 망각’이 문제시 되듯이, 김준오에게 ‘동일성’의 시론은 ‘동일성’의 상실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실’의 문제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향한 그의 인식적 차원을 규명하도록 요청하는 근원적 추동력을 갖는다. 보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시인의 ‘목소리’가 갖는 근원성에 대한 요청이다.

2.2. ‘시인’이라는 존재와 ‘목소리’의 근원성

‘시인’의 존재(Sein)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혼돈스러운 지점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조와 화자’라는 제목의 제3장은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인식적 차원의 동요와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것은 김준오의 체계가 지닌

논리적 취약점일 수 있지만, 그것의 비논리를 논할 수 있는 지점은 적어도 그의 사유의 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근원적 통찰과 맹목이 그의 사유 체계의 근간에서 작동하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시를 담화의 한 양식으로 보는 저자의 입장은 어조를 화자의 목소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때 ‘목소리’는 ‘탈’(persona)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258) 김준오에게 화자와 어조(목소리), 그리고 목소리로서의 ‘탈’의 관계는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하나의 담화로서의 시양식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시를 수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김준오의 설명은 시가 지닌 ‘목소리’의 차원이 하나의 시를 시로서 만드는 근원적 지점이라고 언급하는 것과 같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제 화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시를 읽는다는 것이 화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소리’라는 ‘의미’의 근원은 김준오의 『시론』의 전체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작가는 단순히 제재를 다루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심적 상태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또는 독특한 시각(perspective)에서 제재를 다룬다. 그는 결코 지적·정서적인 무의 상태에서 글을 쓰지 않는다. 작가는 글을 쓸 때 어떤 감정상태의, 비판하는 입장의, 또는 지적으로 냉정한 어떤 존재가 된다. 그리하여 딱딱한(또는 공식적인)/ 부드러운(또는 비공식적인) 어조, 거만한/ 겸손한 어조, 냉정한/ 감정적 어조, 직선적/ 반어적 어조 등이 탄생한다.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선 제재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입장**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태도가 제재나 명제에 지배받지 않는다는(또는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제재나 명제를 개성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는 남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태도는 개성적 작가로서의 개성적 결정, 곧 그가 특수한

청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입장의 드러냄에 관한 결정이다. **여기에 시인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259)

화자의 목소리는 시인의 ‘자유’와 연결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재로부터의 자유이고,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며,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시적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동일성’의 명제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위험성을 수반하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세계와 자아 사이의 균열과 하나의 상실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찢겨진 개념으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념성으로 규정하는 어떤 가치판단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토대를 필요로 한다. 김준오는 그 토대의 역할을 ‘목소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시인이라는 존재의 자리는 ‘목소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발현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준오의 체계에서 ‘목소리’의 현전이 갖는 특권적 차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의 층위에 이르러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즉 ‘자기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히 화자의 목소리를 의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목소리’일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어떤 ‘의명적 목소리’(279)가 아닌, ‘인간의 어조’로서 화자 ‘자신의 목소리’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줄곧 그는 ‘인간’의 언어 사용을 강조해왔고, 그에 따라 담화 양식으로서의 시를 논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것은 ‘의명의 목소리’, 비-인간의 목소리로 환원되었다. 물론 김준오는 이 절의 마지막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립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의 문제를 화자에 집중시키고, 이어서 그 이유로서 ‘화자의 인격이나 신분 또는 마음의 상태 등을 나타낸다’(279)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절에서는 어떤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대상이 말해지고 있다. 그것은 ‘목소리’ 특히 ‘자기 동일성’을 수반한 ‘자기 목소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에 대한

우위에 논의의 일정 부분이 할애되고 있다. 화자의 목소리는 마음의 상태, 즉 의명적이지 않은, ‘자기 목소리’를 지닌 존재, 즉 어떤 ‘정신’의 표현으로서만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김춘수의 작품 ‘은종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무의미 시는 화자나 청자의 존재는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작품 밖의 어떤 대상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만이 보일 뿐이다.……(중략)……여기서의 어조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숙한 인간의 어조가 아니라 의명의 어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¹⁰⁾(279)

김준오의 ‘동일성의 시론’은 위기에 대한 답론일 수 없다. 그것은 기반의 ‘상실’ 위에 자신의 존재론적 토대를 세우지만, 근원적으로 이것은 ‘동일성’의 이념적 획득에 대한 투사 위에서 구축되는 어떤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하다. ‘차이’와 균열은 근본적으로 차이 그 자체로서 사유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차이’는 단지 동일성의 과정을 향한 지양의 단계로서, 하나의 매개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김준오의 『시론』이 던져주는 근원적 모호함이다.

그가 시인의 ‘정신’이라는 토대에 정박한 채, 화자의 목소리, 보다 엄밀히 말해서 자기 동일성을 획득한 ‘자기 목소리’라는 근원으로 귀환할 때, 그것은 후자의 질문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김준오의 사유는 월터의 시에 정박한 하이데거가 자신의 존재 사유 즉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존재했던 자신의 사유를 ‘정신’의 토대 위에서 현현된 어떤 것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하이데거) 역시 존재의 현현으로서의 월터의 시가 지닌 본질을 시인의 정신이 지닌 근원적 차원으로부터 재발견하고 있는 것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은 사유의 궁지로부터 이제 김준오의 『시론』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위계화와 가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10)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김춘수의 시 「은종이」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活字 사이를/ 코끼리 한 마리 가고 있다/ 잠시 길을 잃을 뻔하다가/ 봄날이 먼
 앵두발을 지나/ 코끼리는 活字 사이를 여전히/ 가고 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는 않는/ 코끼리/ 코끼리는 발바닥도 반짝이는/ 銀灰色이다”

순간이 왔다. 그것은 여전히 어떤 타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타자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근원적 ‘정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동일성’은 이미 하나의 균열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가능성은 ‘차이’(타자)를 어떻게 지양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남겨진다. 김준오의 시론 체계는 닫힌 체계를 향한 예정된 모험으로, 전제된 ‘동일성’을 위해서 ‘차이’를 하나의 매개적 성격으로만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김준오의 사유를 그의 사유 체계 안에서 접근할 때 여전히 버릴 수 없는 나머지 질문은, ‘동일성’을 끊임없이 지연시키는 차이와 균열과 상실(‘비동일성’)—그의 지속적인 대결 상대로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대결을 추동하는 근원적(내적) 비동일성—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목소리’와 동일시되었던 개념인 ‘탈’(persona)의 의미 맥락 속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2.3. ‘탈’(persona)의 이율배반

‘정신(주체)의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지점에서 ‘탈’의 논의는 중심이 된다. 이로써 우리는 김준오의 『시론』이 지닌 가장 첨예한 대결의 지점에 들어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론』의 제3장의 2절을 이루고 있는 ‘페르소나’의 장은 이 책 전체의 분류체계 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들을 내포한 채 전개되고 있다. 정확히 ‘탈’의 개념은 그의 체계에 있어서 위협적인 어떤 것이다. 그것은 그의 체계를 위해 설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텍스트 독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저자의 의도와 상반되게 펼쳐지는 ‘텍스트의 과잉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이 장은 그가 ‘말하고자 한 것’ 보다 더 풍부한 어떤 잉여적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련의 ‘혼돈’과 ‘과잉’이 지배하는 이 절의 특이성은 김준오의 ‘시론’이 지닌 한계인 동시에 하나의 가능성이다. 여기에서 김준오의 『시론』에 있어서 ‘가능적’이라는 것, 잠재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성의 시론’이라는 장이 초판에서와는 달리 2판부터 본론의 성격을 띤 채, 책의 말미에 놓였다는 사실이 그의 체계 속에서 ‘동일성의 시론’이라는 기획이 지닌 무게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하나의 ‘지향적 대상’으로서, 이념적 성격의 본질로서, 즉 잠재적이고 ‘가능한 자아’를 중심에 두고, 그 본래의 위치에 놓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편제의 순서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김준오가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입장, 자신의 관점,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어떤 위치에 가져다 놓고 있는가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보론’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시론이 구축되어가는 도상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다.

상기의 절 속에서 논의의 맥락은 전환을 갖는다. 그것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인이란 어떤 존재인가’하는 물음으로 이동하는 거점을 이룬다.¹¹⁾ 시인의 의미를 둘러싸고 ‘개성론’과 ‘몰개성론’이 갖는 두 측면의 긴장관계는 『시론』을 통해서 시종일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3장 2절에 이르러 비로소 김준오는 화자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를 전체적으로 보다 명확히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고 언급된다. 이 문장이 지닌 파토스가 과잉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겠지만, 하나의 시를 ‘전체로서, 명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겠다는 저자의 관점은 『시론』의 전체적 의도이기도 하거니와, 비로소 이 절에 이르러서 궁극적으로 적시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문학을 일종의 ‘인간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관점을 끝까지 유지했던 김준오에게 있어서 시의 ‘화자’가 갖는 문제는 역사적 현실의 문제와 결부되어 궁극적으로 해명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그는 결코 현대시를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11) 김준오, 「페르소나·화자 주체」, 『현대시와 장르비평』, 문학과 지성사, 2009, 313쪽.

그는 먼저 ‘개성론’과 ‘몰개성론’에 입각해 ‘탈’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상이란 입장간의 차이는 시적화자와 실제 시인의 위치를 동일한 층위에서 볼 것인지 혹은 서로 다른 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그에게 있어서 ‘현대의 시관’은 몰개성론의 관점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김준오에 의하면 시적화자는 실제의 시인과 엄격하게 구분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더 진척시킨다면 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론』의 관점은 그것의 구분을 ‘엄밀하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탈’은 정확하게 시인의 목소리가 창조된 것이고,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시가 하나의 창조물인 이상 ‘탈’이란 시적 화자를 “자전적으로 동일시할” 것이 아니라 “상상적으로 동일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적 화자는 제재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기 위해 창조된 극적 개성이기 때문에 시는 어디까지나 허구적이고 극적이라는 것이다.(282)

하나의 시작품이 허구적이라는 것이 ‘시적 진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은 ‘시 작품을 시인의 의식이 표명된 것으로 한정지어 볼 것인가, 혹은 그것이 지닌 텍스트적 성격을 중심에 두고 해석할 것인가’ 라는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김준오는 『시론』의 내부에서 여전히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의 설명 대상, ‘시인’이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비록 화자/시인은 그와 같은 구분을 둘러싼 개성론의 입장과 몰개성론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일시’를 위해서든 ‘비동일시’를 위해서든 구분에 앞서서 ‘시인’의 존재를 요청한다. 그의 말대로 “화자를 이렇게 시인과 동일시하면 개성론이 되고, 별개로 보면 몰개성론이 된다.”(282) 그것을 별개로 본다는 것이 ‘시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동일시’에 있어서 이 구분은 반대로 작동한다. 화자와 시

인이 동일시 될 때, 그것은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동일시)을 위해서 자신의 관점을 이미 한 번은 수정해야 한다. 즉 ‘비동일시(구분)’를 전제해야 한다. 무엇이 얼마만큼 혼동된 것일까? 그것은 ‘차이’에 대한 김준오의 인식적 태도의 모순을 나타낸다.

“시인은 작품 ‘밖’에 존재하지만 화자는 작품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 할 때, 김준오의 구별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의 분기점을 이루는 것은 작품의 존재이다. 하나의 텍스트를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공간을 상상하기 이전에 이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텍스트는 시인의 존재라는 한계 지점과 맞닥뜨린다는 사실이다. 시인의 존재는 분명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짓는 경계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존재와 화자 사이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사이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본고의 최종적 논의는 그 사이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지만, 이 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것은 비로소 ‘탈’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화자를 시인과 구분할 때 퍼소나(persona)라 불린다.”(282) 이 문장은 세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화자/시인과 구분되는 사이 공간에 ‘탈’이 놓인다는 의미와 더불어 화자의 성격이 시인과 구분될 때, 즉 텍스트가 자신의 한계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때, 우리가 몰개성론의 입장에 서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기존의 화자가 갖고 있던 성격 그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화자→페르소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은 근원적으로 시인과 구분되는 ‘화자’를 대리보충 한다. ‘탈’의 중심개념은 어디까지나 ‘시적 자아’이다.¹²⁾ 시인과 화자의 구별은 시 작품에 대한 의미 해석의 관점을 둘러싸고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시인과 동일시 될 수 있었던 ‘화자’가 이번에는 시인과 구별되는 성격을 획득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배우가 쓰는 가면’, ‘배우의 역할’을 의미하는 라틴어 ‘퍼소난도’(personando)에서 유래한 용어이

12) 김준오, 앞의 책, 310쪽.

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본인의 역할에 완전히 동화되면서도 무대의 페르소나와 자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¹³⁾는 사실이 갖는 모순에 있다.

연극의 가면은 다른 비예술적 목적의 가면과는 달리 얼굴을 숨기거나 변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 얼굴을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혼돈상태의 내면 세계나 인격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고 공식화할 수 있는 개성이나 인물로 구체화시키는 수단이었다. 더구나 이 양식화된 가면(stylized mask)으로서의 페르소나는 예술가의 태도나 인생관, **우주의 어떤 한 단면같이 너무나 심오해서 인간의 얼굴표정으로서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상징하거나 대변한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이제 연극의 가면만을 가리키는 연극의 전문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희곡의 인물뿐만 아니라 시, 소설의 인물, 특히 시, 소설의 일인칭 화자를 가리킨다.(283)

화자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채택된 ‘탈’의 개념은 연극의 가면을 통해 은유적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시인’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화자의 성격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시인과 화자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만드는, 따라서 시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제 문제는 ‘탈’(가면)로서의 화자에 집중되어야 하고, ‘탈’에 대한 논의는 온전히 시인과의 모호한 구별로 이루어지는 체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인용된 문구의 맥락 속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체계화의 작업은 오히려 스스로 부정한 ‘구분’과 경계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엄밀히 이 지점은 『시론』의 전체 맥락이 하나의 이론적 궁지로 내몰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시인의 ‘목소리’라는 토대로부터 화자의 ‘탈’이라는 개념으로의 이동을 통해, ‘시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은 ‘시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

13) 조르조 아감벤, 『벌거벗음』, 김영훈 역, 인간사랑, 2014, 82쪽.

는 윤리적 물음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의 이동은 시의 존재 기반을 ‘시인’의 존재가 지니는 성격의 규명을 통해서 밝혀보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준오의 체계 속에서 ‘타자’가 틈입할 수 있는 여지는 비교적 적어보이고, 그의 관점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관점은 무엇보다 동일성이라는 이념의 작동과 함께 시대적으로는 과거의 것(전통)으로, 이미 전승된 어떤 개념들로 귀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탈’이라는 개념이 서 있는 지대는 ‘동일성’이라는 기획이 애초에 설정되었던 ‘상실’된 토대로서의 근원만큼이나 불완전한 어떤 것으로 표상되고 있다. ‘가면’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여기서 ‘얼굴’의 은유는 온전히 ‘시인’의 편에 서 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술가의 태도나 인생관’과 관련된, 시인의 ‘정신’과 연계되어 사유되고 있는 것이다. 가면은 ‘목소리’가 그랬듯이, 시인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얼굴’을 가리면서 동시에 ‘얼굴’을 드러낸다. 그것은 ‘얼굴’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존재 의의를 지니지만, 우리가 ‘얼굴’을 상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얼굴’을 가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드러내는 ‘가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얼굴’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한 단면같이 너무나 심오해서 인간의 얼굴 표정으로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상징하거나 대변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과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순적으로 존재하며, 그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풍부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면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얼굴 이상’의 그 무엇을 나타낸다. 구분을 위해 도입한 ‘탈’(가면)의 개념은 김준오가 현대시의 ‘물개성론적 관점’으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과의 대결 속에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구분하고자 하는 것 보다,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가면’은 ‘얼굴’과 구분되면서 ‘얼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얼굴’ 그 자체의 균열을 그려

보이고 있다. 이것은 김준오라는 저자의 ‘얼굴’(주체)이 가지고 있는 균열이다. 그것은 논리적 취약점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논리를 넘어서는 김준오라는 저자의 고유명이 기입된 장소의 독특성을 생산한다. 실제로 바로 이어지는 다음 단락의 문장에서 ‘시인’은 ‘작품 속의 시인’이라는 말로 혼용되어 설명된다.

‘시인’과 ‘정신’과 ‘목소리’의 근원이 김준오의 『시론』의 시론(시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불러오고 있다. 그렇다면 예의 그 동일성으로의 수렴이라는 관점으로 김준오의 입장을 귀결시켜야만 옳은 것일까? 그와 같은 관점에 설 경우, 『시론』을 통해 집요하게 들려오는 ‘시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문제는 매우 단순하게 해결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는 간단히 ‘동일성의 시론’과의 대척점에 ‘비동일성의 시론’을 전개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의 시인은 이미 의미 해석의 장에서 폐기되었고, 오직 텍스트의 기표적 의미 맥락에 대한 해석만이 문제된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논리적 맹점’이 아니라, 김준오의 『시론』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가능성이다. ‘탈’이라는 잉여 요소는 그의 체계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우주의 한 단면’과 같은 ‘위험’을 노출시킨다. 엄밀히 말해서 『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에 대한 김준오의 설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체계를 수용하고, 그의 체계 속에서 ‘시론’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관점’을 추출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궁지는 그의 관점이 어떤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관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김준오의 ‘시의 정의’가 아닌, ‘시에 대한 사유’가 지닌 가능성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김준오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맹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에서 편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은 ‘전송된 것’을 통해 재사유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할 때, 비로소 허락될 수 있을

것이다.

『시론』의 저자는 3장 2절의 마지막에서 ‘자크 데리다’의 관점을 언급한다. 말하기(목소리)와 글쓰기(문자)의 이분법적 위계는 서구 형이상학의 오랜 특권적 오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입각해 “화자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304)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데리다 인용을 통해, 김준오는 자신에게 있어서도 얼마만큼 이분법적 사유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김준오의 텍스트가 ‘가능성’의 지평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닫힌 체계를 지향하는 문장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점, 여전히 포기될 수 없는 ‘개념’들이 살아남아 그의 체계를 오래도록 불완전하게 동요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론』 내에서 ‘탈’의 논의는 미완의 상태로 남겨져 있고, 또한 미완으로 남겨져야만 했었던 것이다. 데리다에 대한 일반적 관점 하에서 화자를 기호와 등치시키고 있는 문장으로부터 ‘탈’에 대한 논의를 더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될까?¹⁴⁾ 구체적으로 ‘주체의 죽음’에 대한 논의와 김

14) 김준오의 관점과 대척점에 기호나 텍스트에 대한, 대중적 지식에 입각한 데리다의 관점을 놓음으로써, 김준오의 ‘동일성의 시론’이 지닌 한계 지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데리다의 관점은 김준오의 『시론』이 지니고 있는 텍스트적 가능성의 측면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종종 오해되고 있는 데리다의 관점과 ‘해체주의’의 관점(혹은 그것과 연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데리다의 ‘해체들’이 생산하는 텍스트 내부의 새로운 해석들이다. 무분별한 기표의 유희와 데리다가 이야기 하는 ‘그라마톨로지’(문자학)의 논의는 많은 차이를 갖는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하나의 언어 속에서 그리고 하나의 논리 속에서 글을 쓰는데, 그 답론은 본질상 그 체계와 고유한 법칙들과 생명력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중략)...아울러 독법이란 늘 작가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즉 그가 사용하는 언어 도식들을 지배하는 것과 지배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를 겨냥해야 한다.”(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역, 민음사, 2010, 386쪽.) 텍스트에 대한 독법은 작가의 지배 권역을 온전히 넘어서는 어떤 것을 향해서만 정향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작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과 ‘지배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겨냥해야만 가능하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글쓰기

준오의 사유 사이의 대결은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을까? 그와 같은 구상에 대한 응답은 『시론』이라는 텍스트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페르소나·화자·주체」¹⁵⁾라는 글을 통해서 ‘주체의 죽음’과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역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의미와 ‘개성론’의 밑바탕이 되는, 화자로 비로소 ‘현존’ 가능하게 되는,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시인’의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이다.

말하기와 글쓰기(인쇄는 글쓰기와 변별되지만 글쓰기에 포함시킨다), 말과 글은 혼동될 수 없다. 이것은 생화와 조화 사이만큼 변별된다. 그러나 언어는 근본적으로 구술과 목소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말하기와 글쓰기 사이의 어느 지점, 곧 중간 지점을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¹⁶⁾

‘말하기’(목소리)와 ‘글쓰기’(문자)의 형이상학, 혹은 그에 의존한 화자와 주체 논의는 변별되는 이 지점들을 거점으로 시 해석의 준거점이 된다. 그렇다면 ‘말하기’와 ‘글쓰기’ 사이의 지점, 그 중간 지대를 논의의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지점을 허락하지 않는, 화자를 주체로 대체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시적 의식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가리킨다. 김준오는 분명 ‘통일성’에 대한 관점마저도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매도되는 현실¹⁷⁾ 속에서, 주체가 ‘탈중심화’(분열)되는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시인’을 초월적 존재로 설정하는 김준오의 시관은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그리

의 의미는 ‘일정하게 양분할 수 있는’ 대립적인 영역을 넘어서 비판적 독법을 통해 실행될 수 있으며, 오직 ‘사이 공간’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만이 ‘유익미한 구조’는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유희적 탐닉’과는 거리가 멀다.

15) 김준오, 앞의 책, 311쪽.

16) _____, 위의 책, 323쪽.

17) _____, 위의 책, 326쪽.

고 『시론』의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동일성에 대한 열망’은 ‘변화’와 ‘다양성’과 ‘차이성’ 속에서 오히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어떤 것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차이성 속에서 동일성’은 비로소 가치를 획득한다는 마지막 문장이다.(418) 그것은 균열 속에서, 얼굴과 가면의 차이를 넘어서, 얼굴의 과잉된 이미지의 균열 속에서, 목소리와 문자의 사이 공간, 그 내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동일성의 시론’이 가진 실제적 의미는 ‘동일화의 시론’이며, 그것은 실패한 ‘동일화’의 흔적을 내포하고 있다. 시인과 화자 사이의 동일성에 결부되는, 또 이와 대립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개진된 ‘탈(persona)의 시론’¹⁸⁾은 모두 이러한 ‘동일성에 대한 열망’ 속에 기입된 근원적 ‘차이’의 흔적이다.

3. 결론

김준오의 저서 『시론』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시론』의 체계가 지니고 있는 현재적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시론』이라는 텍스트의 중심 개념은 ‘동일성’으로, 김준오에 의해서 선택된 이 개념은 그의 ‘시론’의 전개과정 속에서 일관된 중심적 의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오늘날 김준오의 체계의 자명함,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이념적 추구의 자명함을 감내한다는 것은 ‘동일성’의 상실로부터, 그 개념의 토대가 부재 한다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주는 위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동일성’ 혹은 ‘비동일성’, ‘말하기’ 혹은 ‘글쓰기’, ‘시인’ 혹은 ‘화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문제를 단순히 어느 한 편의 선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대비되는 두 개념들은 모두 김준오의 체계 속에서 동시에 서로의 의미 체계 속으로 기입된다. 물론 김준오는 그 체계화 운동의 종착지를 ‘동일성’의 층위에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시

18) 김준오, 앞의 책, 270쪽.

론』이 갖는 현재적 가치는 그것이 어느 한 편의 지양적 과정을 통해 설정된 헤겔식의 ‘절대적 정초’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칸트적 의미의 규제적 의미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동일성을 향한 열망’과 ‘동일성’이라는 가치 개념이 일련의 실천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준오에게 있어서 시론의 구축이 언제나 현재적 시의 문맥, 현대시의 변모 양상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시론의 중심 사상이 갖는 실천적 차원을 드러내는 한 증거가 된다.

김준오의 『시론』에는 ‘동일성의 시론’이라는 가치 명제로부터 시작한 시적 인식 체계의 구축을 향한 열망이 남긴 ‘차이’의 흔적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탈의 시론’의 전개이다. 무엇보다 『시론』 내부에서 ‘페르소나’의 장이 차지하는 의의는 오직 그 텍스트의 내적 의미 맥락에 대한 논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인과 화자의 구별 속에서, ‘탈’이 지니는 ‘숨기면서 드러내는’ 이중적 속성은 시인과 화자의 명확한 구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과잉된 의미를 함축하는 대상으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김준오의 사유가 지닌 사소한 오류일 수 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은 오히려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채 전개된다.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혼동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모호성은 김준오의 체계가 지니는 내적 결핍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인가? 이것은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론적 차원’에 대한 물음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의 사유가 어떤 하나의 사태에 의해 요구되어 그 사태를 뒤따라갈 경우, 도중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¹⁹⁾ 우리가 내적 결핍으로 확인한 이미지의 과잉은 오히려 김준오의 사유가 지닌 가능성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모호성의 본질은 ‘탈’의 존재가—모순과 무모순 사이에서, 그가 원하는 체계의 구축적 노력과 구별의 차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김준오의 사유 안으로 완전하게 포착될 수 없었던 것—바로 그에게 이념적 열망의

19) 마르틴 하이데거, 『동일성과 차이』, 11쪽.

대상으로 존재하는 ‘동일성’을 대리 보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이로써 우리의 결론은 『시론』이라는 저서의 체계가 어떻게 열린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념에 대한 열망만으로—혹은 현실의 ‘변화’와 그것의 이론화 작업 사이에 엄존할 수밖에 없는 상위 의식 속에서—끈질기게 추구된 존재론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의 죽음’이나 ‘저자의 죽음’이 운위되는 담론 구조 속에서, 그에 따른 김준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물음을 부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시론인 「轉移의 시론」속에서 그는 ‘타락한 세계’와 ‘타락한 글쓰기’, 그리고 ‘현대시의 요설화’²⁰⁾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준오의 선택은 ‘화자’인가 혹은 ‘주체’인가라는 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위기(‘현대시의 황폐화’)에 대한 대응의 방식으로 ‘시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 탐색’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그는 이미 『시론』에서도 비유에 따른 동일성의 발견을 ‘전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轉移의 시론」에 이르러 그것은 단순히 ‘은유’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유적 차원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기에 이른다. 그는 인간 사고의 원형으로서 ‘전이’의 개념을 ‘현대시의 지배적 기법인 인용·인유·패러디’를 설명하는 기제로 도입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비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의 변화를 ‘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²¹⁾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전이’의 개념은 보편성을 띠는 개념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전이’를 ‘역사적 국면’에 따른 변화의 대상으로 본다.

요컨대 마지막 물음은 그것이다. 김준오의 시론의 전개, 구체적으로 ‘시적인 것’에 대한 그의 존재론적 탐구 속에서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20) 김준오, 「轉移의 시론」, 『시와 시학』, 1997년 겨울호, 144쪽.

21) _____, 「육시론(六詩論) 및 시안론(詩眼論)과 서구의 전이시론(轉移詩論)」, 앞의 책, 269쪽.

최종적 인식의 근원이 ‘동일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명확히 그것은 ‘동일성 자체의 동일화 과정이라는, 정신의 동일성의 전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동일성의 전개 과정이기도 했던 그의 시론의 역사가 언제나 ‘동일성의 무한한 차이화’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의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언제나 ‘역사적 국면’으로 존재했던 현재적 시간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의 체계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1차 자료

- 김준오, 『시론』 제 4판, 삼지원, 2011.
_____, 『현대시와 장르비평』, 문학과지성사, 2009.
_____, 『현대시의 방법론과 모더니티』, 새미, 2009.
_____, 『현대시의 해부』, 새미, 2009.
_____, 「轉移의 시론」, 『시와 시학』, 1997년 겨울호.

평론 및 논문

- 고현철, 「체계적 기술 시학-김준오의 시론과 장르론」, 『문학과 사회』, 2000년 여름호.
구모룡, 「시학의 확장: 본질시학에서 해체시학으로」, 『시와 시학』, 1997년 겨울호.
_____, 「비평적 글쓰기와 이타성의 지평」, 『문예중앙』, 2000년 가을호.
남승원, 「동일성의 시론」으로 본 균열의 미학」, 『비등하는 역사, 결빙의 현실』, 푸른사상사, 2013.
이승훈, 「김준오 시론의 현대성」, 『오늘의 문예비평』, 1997년 여름호.
이 찬, 「김준오 시론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4호, 우리어문연구회, 2005.
이도연, 「김준오 시론 연구」, 『국어국문학』 제145호, 국어국문학회, 2007.

외국서적

- 마르틴 하이데거, 『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역, 민음사, 2009.
_____, 『이정표 2』, 이선일 역, 한길사, 2005.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틱』, 송태욱 역, 한길사, 2005.
_____, 『언어와 비극』,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04.
자크 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역, 민음사, 2010.

_____, 『정신에 대해서』, 박찬국 역, 동문선, 2005.

조르조 아감벤, 『벌거벗음』, 김영훈 역, 인간사랑, 2014.

J.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by Alan Bass,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a’ in Kim Joon-oh *Poetics*

— Focused on *Poetics* by Kim Joon-oh

Yi, Seok
Kyung Hee Univ.

Kim Joon-oh undergoes a process of change that has made a series of reasons focusing on the ideological value concept of ‘ident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his own poetics. However, the point itself of the meaning ‘identity’ remains continuously without a fundamental change. The problem is “what does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his ‘poetics of identity’ and the consistently maintained point of view mean indeed?” To answer these questions adequately, an explanation for the concept of ‘identity’ in the center of his poetics is needed. In addition, through reading about the book *Poetics*, the process to determine how the concept of ‘identity’ actually works in his entire theoretical framework is needed, too. When the ‘identity’ is defined as a ‘value concept’ in his *Poetics*, it is possible to see that Kim Joon-oh’s intention was to explore the nature of work in a coherent ideological system of the ‘identity.’ But in fact, the works of the ‘identity’ in *Poetics* reveals antinomic situation in which the basis of the concept is absent. The potent way to reach what it means to take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situation that threatens the system of his poetics is not to reduce the poetics of identity as an illogical system, but to discover the aspects of ‘non-identity’ that are fundamentally working in its core through the poetics of identity, and to explain the positive meaning the ‘non-identity’ at the same time.

Ontological perspective of Heideggerian meaning that is situated in the core

of Kim Joon-oh's poetics of 'identity' will allow you to determine how he positions the being of the poet in the core of the recognition about the poetry. (*Poetics*, Chapter 1 v. 2) And the core of the meaning which he found in the ground of the being of the poet is found in the origin of the 'voice.' (*Poetics*, Chapter 3) The author's position as a form of discourse is that a tone is the speaker's voice. And 'voice' in this case is interpreted to be the same as persona. The relationship among the speaker, the voice of the speaker, and persona forms the poetics that he wants to materialize, that i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is poetry?' Each of the concept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 systems that the poetics of Kim Joon-oh want to build seem to be comprised of exercises that avoid the 'difference' following the consistency of 'identity.' However, in order to access the underlying foundation of his poetics which is begun from the ontological question, the original antinomic nature of 'persona' has to be researched. The way it actually works in *Poetics* of Kim Joon-oh is represented as aporia that indefinitely makes the distinction between 'identity' and 'non-identity.' Kim Joon-oh's non-identical perspectives to explain the concept of persona is a trace of failed identification. At this point, the point of view of Kim Joon-oh who just wanted to partition the system of poetics causes a gap between 'what he is saying' and 'what he wants to say.' Strictly speaking, the fundamental dimension of the 'non-identity' which the poetics of Kim Joon-oh implies may also be referred as that place. The poetics of Kim Joon-oh means the course that the system of thinking works. It reveals the excess of the antinomic meaning and allows you to know the current value his poetics hav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poetics of identity' are 'poetics of identification' and it implies a trace of failed 'identification.'

In short, the significance of the 'persona' in *Poetics* can only be found from the discussion in the context of the inner meaning of the text. The current value of Kim Joon-oh's 'desire for identity' is in the response he consistently

maintained in the discourse structure which was described as ‘the death of the subject’ and ‘the death of author.’

Key words: Kim Joon-oh, identity, non-identity, persona, poet, speaker, transference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

